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롬8:32).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요13:1).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그 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로써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믿으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그 분을 신뢰하며 사랑하는 첫 걸음은 바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대속제물로 드려지셨는데, 문제는 '내 자신이 그 예수를 메시아 즉 나사렛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느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내가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또 여호와께 서원한 것들을 어떻게 드릴 것인지 등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디안 족속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미디안 족속 가운데에서도 모압에 속한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이스라엘을 바알브올에 가담하게 하여 우상숭배에 빠뜨린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다섯 왕들을 비롯해 브올의 아들 발람을 죽이고 그 전쟁에서 가지고 온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후에는 요단강 동쪽의 땅을 르우벤과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게 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절기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미디안 족속에게 원수를 갚아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정결하게 되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상태는 부정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부정하게 되었다는 의미는 바로 우상숭배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지금까지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싯딤에서 있었던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나 불평 또는 불순종 등의 죄를 범하

였습니다. 그러나 백성 전체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떠난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두 번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에서 돌이킬 때 우상숭배와 관련된 모든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그 자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하게 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우리 인생들의 측면에서는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는 먼저 마음으로부터 돌이키는 진심 어린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외형적으로도 남아있는 우상숭배의 모습들도 모두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돌이킨다는 것은 마을을 괴롭게 하고 슬피 울며 그 죄를 자복하여 속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제거한다는 것은 자신의 몸에 붙어 있는 장신구들을 떼어내고(창35:2, 4 참조) 우상숭배와 관련된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 (출32:26-29 참조)등 실제적인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미디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말씀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갈 때 제거해야 하는 외형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현대적인 의미에서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대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거나 하나님 보다 더 사랑하는 것' 또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 더 의지하는 것' 등을 떠올리게 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은연 중에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우상숭배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미 삼아'라는 이유로 궁합을 보고, 사주를 보고, 운세를 보고, 집의 터가 명당인지 아닌지를 궁금해 합니다. 지금 사업을 시작해도 되는지, 이 사람과 결혼을 해도 되는지, 이사는 언제 가야 하는지, 내가 언제쯤 성공할 수 있는지 등등 그 이유도 다양합니다. 예전에 어느 방송에서 어떤 점쟁이가 하는 말이 '자신을 찾아와 점을 치는 사람들 중에 1/3 이상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상숭배가 단순히 마음 속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것' 또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실제로 점쟁이를 찾아가 점을 보러 다니고 우상을 찾아가 절을 하는 등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우상숭배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현재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에는 수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단도 있고, 스스로가 예수라는 이단도 있으며, 자신을 가리켜 성령이라는 이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단들의 터무니없는 가르침을 듣고도 그곳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금송아지를 가리켜 자신들을 이끌 신이라고 우기며 절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며, 바알브올에게 가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런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조국의 교회와 현재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에도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점을 치러 다니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비록 이단에 빠지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 모두가 애통하며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장신구를 떼어내고 정결하게 하여 의복을 바꾸어 입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알브올에 가담한 죄에서 돌이켜 미디안 족속을 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디안 족속을 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온 땅의 주인 이심을 믿는 믿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둘째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이 그 분의 백성이 되는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모든 것과 싸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하는 미디안 족속, 모압의 여인들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사탄 마귀입니다. 고후11:4에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

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였듯이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여 멸망으로 이끌려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힘써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은연 중에 쓰는 말과 행동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사탄 마귀와 싸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와 싸우는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뿐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오직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주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